

2020년 3월 시청자위원회 (서면회의)

2020년 3월 27일 (금)

참석 : 김선재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박상민 위원, 양선희 위원, 김종남 위원

김선재 위원장

<노정렬의 시시각각>

- 2주 간 총선과 관련된 비슷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5일에는 <21대 총선 한달 앞, 총청 이슈는?> 이라는 주제로 지역 정치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에 비해, 각 주요 정당 위원장들이 출연했던 22일의 방송 내용이 각 정당간 비방과 홍보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련된 혁신도시,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했으면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기존에 제안했던 유튜브 썸네일을 1월에 방송되었던 것들은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나, 이후 방송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에 해당 방송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21대 총선 한달 앞, 총청 이슈는?>(예) 함께 병기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다큐에세이 그 사람>

- 해외취업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잘 담겨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대학 청해진 사업의 일환으로 멕시코에서 해외취업을 이루고 한국의 명예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온 뒤라 더욱 더 공감가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젊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점에서 해외취업은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도전해보고 싶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관문'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해외취업을 이룩한 학생들의 삶을 조명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카메라에 조금 더 담아냈다면 더욱 많은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건강플러스>

건강플러스를 시청했는데 3월 7일 방송분은 아나운서 2명이 진행하기에는 질문이 많지 않고 주치의의 설명이 많아서 1명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1일분을 보니 여자 아나운서 1명이 진행하는데, 2명보다는 1명이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방송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달라진 이때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시기인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뉴스시청을 많이 했는데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나 이슈를 잘 준비해 방영 해주어 잘 시청했습니다. 4.15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자칫 후보자들에 대해 잘 모르고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지역 출마자들의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편성과 적극적인 보도를 기대합니다.

양선희 위원

<뉴스데스크>

1. 3월 18일 '선택 2020, 충청이 민심이다. 주목 이 공약'

- 기자의 리포트에 앞선 앵커 멘트에서 대전·충남·세종 표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충남·세종이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
- 캐스팅보트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적절하지만 스윙보트의 경우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잘못 쓰인 경우이며, 자칫 대전·충남·세종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폄하하는 인상을 주고 투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3월 23일 '나눔은 또 나눔으로... 함께 이겨내요'

-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초·중학생의 마스크 나눔 소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부여
- 앞으로도 시민의식이 발휘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따뜻한 뉴스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3. 3월 24일 '책, 장난감 대여도... 드라이브스루의 진화'

- 아산시 중앙도서관의 드라이브스루 책 대여 방식을 소개했는데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됨
-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소외나 배제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나 방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3월 24일 '공약 옥석 가리고, 참여까지'

- 공약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가 직접 공약 가능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의 총선' 사이트를 소개하는 등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바람직한 보도였음

<노정렬의 시사각각>

1. 3월 15일 '총선 한 달 앞, 충청 이슈는?'

- 충청 지역의 총선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4·15 총선 전반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지역이슈는 후반부에 언급됨으로써 지역방송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총선이라는 기회활용에 미흡

<내가 그리는 세상>

1. 3월 7일 '보이지 않는 위협, 바이러스' (대전대)

-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적 상황에 적절한 주제였음
- 다양한 영상자료와 풍부한 정보가 인상적이었으며, 내용과 조화되는 음악과 깔끔한 자막처리로 전달력도 우수했음

2. 3월 14일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더 몰랐던 당신의 이야기'(순천향대)

-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세대격차와 갈등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즘 부모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소개하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이 다소 평이하고, 주목도를 높일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

3. 3월 21일 '팔도기행 강원도'(배재대)

- 애니메이션 형식이 참신함을 주었으나 스토리텔링이 미흡하고 내레이션의 전달력이 떨어졌음

<생방송 아침이 좋다>

1. 3월 9일 진행자 교체

- 김경섭 아나운서의 부재로 새로운 진행자(박종훈 분)가 투입되었는데 어색함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과 조화되는 모습이 좋았음

박상민 위원

<뉴스데스크> 3/23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 "지역경제 살리자!"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비롯해, 지역의 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도가 다양하게 방송되어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총선 관련 보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요일은 시청하지 못했지만 이 날은 짧게 2건의 소식만을 전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종남 위원

<생방송 아침> 3/24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며 진행자가 총선 관련 거소투표 행사에 관한 안내를 하여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방송중 <맞춤이불로 창업신고 합니다> 라는 토너가 무척 유익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마켓존에서 학생들을 소개했는데, 재학생들 대상으로 학업과 병행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척이나 신기했고, 적극 권장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만의 맞춤이불을 만들기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매장에서 40년 경력의 사장님 조언까지 듣는 점도 보기좋았습니다.

졸업후 취업에 얽매이지않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대학생활을 하며 창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개가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